R A O N A T T I

말레이시아 의 중심에서 라온아띠 를 외치다

RaonAtti 3기 Malaysia 팀의 3번째 소식지

KB와 함께하는 대학생 해외봉사단
RaonAtti

in Bethany Home
Pine
Erin
Estella

2010년 5월, 말레이시아의 날씨 만큼이나 뜨거웠던 우리들의 이야기 !

편집장 : 황인실 사진&영상 : 권혁배, 이은솔 기자 : 현예지, 노민영

RaonAtti 3기 말레이시아 팀 .... 집중 탐구 시간 ~ !

Name : Jake

말레이 라온아띠 노팀장님
요리 잘하는 로맨틱 가이 ?
고양이와 소통하는 존재
새까맣게 타서 현지인과 구별 안감
노래잘함. 술마시면 가끔 불러줌

Name : Estella

우리팀의 귀여운 맏언니
바퀴벌레랑 개구리를 잘 잡음
Tandas (화장실)에 자주 감
미러볼 밑에서 춤추는 것을 즐김
외국어를 주어먹고 잘따라함

Name : Pine

자칭 귀염둥이 (타칭 아님)
워십 댄스 강사님
많이 느리다, But 중국어는 빠르다
중국계 남자친구 찾는 중
길가다가 갑자기 쌩목 MP3
연중무휴 멜라카 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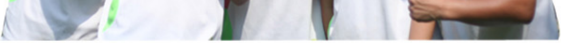
Name : Erin

우리 팀의 막내
풍선아트의 대가
꼼꼼한 회계 담당
과자 먹는 것을 좋아함
손재주가 뛰어난 만능키재
최장신 입니다
힘이 제일 쎄다
인간 알람시계
콜라 중독자

Name : Blaise

우리 팀의 맏형
CF & 영화 조감독 휴직중
영상 편집의 달인
위생과 청결을 중시함
아이스 리마우(라임쥬스)중독자

현예지
노민영
황인실
이은솔
권혁배



5월의 말레이 라온아띠 NEWS

2010/05/08 Pine's Happy Birthday Party

Pine 생일파티를 위한 저녁 만찬 준비중 ♥

핀란드 친구들이 준비한
트위스터 게임 중 ~
다들 무지 신났다

Pine ~
생일 축하해

Pine을 위한 스페셜 생일 선물 !
Indian 펀자비 수트 ~ 짜잔

이제 만 22살이에욧 ~

Pine 얼굴에 케이크 투척 중 ~ ㅋㅋ

함께해준 소중한 인연들~ Volunteer friends in Bethany Home !

2010년 5월 8일... 라온아띠는 Pine 에게 소중한 추억 하나를 만들어 주었다.

2010/05/21 ♥ Penang YMCA와의 만남 !

라온아띠 말레이시아팀, 천사들과의 시골생활을 마무리 짓다.

- 우리 이제 손으로 대화해요 :)

5월 21일, Bethany home 생활을 마치고, 4시간에 걸쳐 Penang YMCA로 활동장소를 옮겼다. Penang은 한국의 제주도와 같이 아름다운 섬이다.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시골에 있었던 우리는 처음 도시구경을 하는 사람들처럼 Penang의 화려함과 높은 건물들에 감탄사를 연발하였다. 막상 YMCA로 숙소를 옮기니, 새로운 활동에 대해 또 다른 느낌의 기대감과 약간의 긴장을 느낄 수 있었다. Penang의 스케줄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Penang city tour를 통해 Penang이라는 섬의 느낌을 알 수 있었고, Penang YMCA 50주년 dinner 행사참여를 통해 Penang YMCA Staff과 Y member들의 가족 같은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 간단한 활동소개를 한다면, Penang에서는 DEAF와의 활동이 대부분이다. 한국에서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시선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수화를 쓰는 것조차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하지만, Penang YMCA는 청각장애관련 활동이 주된 사업이고, 이 때문에 이곳에 소속된 청각장애인들의 활동이 많이 활성화 되어있다고 한다. Penang의 생활은 우리가 마냥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닌, DEAF친구들을 통해 DEAF문화와 그들에게서 일상생활의 지혜를 배울 차례이다.

또, 우리는 7월 말 10개국 DEAF대표단이 참여하는 YMCA HHCamp 한국 Staff로 활동하게 된다. 이 캠프를 통해 한국에 대한 문화를 알리고, 전반적인 Camp의 진행보조의 역할을 하게 된다.

말레이시아 팀은 KL YMCA, Bethany home 활동을 마치고, 마지막 활동장소인 Penang YMCA의 활동을 앞두고 있다. 이제까지 활동장소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던 것과 같이 Penang에서 또한 우리의 화려한 날개 짓을 시작하려 한다.

말레이시아팀 마지막까지 지켜봐주세요!! :)

Kawan - Kawan Boleh!!!!!

페낭 시내 투어 중 시청 앞에서 찰칵 ~

페낭 Y 스텝분들과 저녁을 함께하다 !

우리와 함께 하게 될 Penang YMCA 스텝 소개

Winnie ♥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강한
매력의 소유자
이름 못지않은 WINNIE pooh
같은 포근함
노래방과 비빔밥을 사랑하는 그녀

MS. Ong ♥

KL YMCA 아이린에 이어
두 번째 정신적 엄마
penang YMCA
RaonAtti 책임자

2010/05/21 ~ 2010/05/23

중간 평가 보고

그 무엇보다 뜨거웠던 말레이시아의 5월의 중반, 우리의 두 번째 흔적이었던 베타니 홈을 뒤로 한 채, 피낭이라는 새로운 곳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기에 중간보고라는 타이틀을 건 3박4일간의 김운용 팀장님, 이아나 간사님과의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며, 늦어버린 일정으로 인해 픽업시간에 차질이 생길까 차에 날개를 달아 날아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달려갔다. 공항에서 한국에서 오신 두 분을 보는 순간의 반가움이란 어찌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나 간사님을 껴안은 채 폴짝폴짝 뛰는 여자 멤버들과 조용히 잘 지냈냐는 말씀과 함께 쓰윽 내미신 팀장님의 손을 잡으며 기분 좋은 일정을 시작하였다.

피낭이 두 번째인 이아나 간사님에게 피낭에 온지 1일차인 우리가 무언가를 설명해주기엔 무언가 많이 모자랐지만 마치 우리 집 인냥 " 잘 오셨어요~ 오시는데 불편한 것은 없었어요? 빨리 YMCA가서 쉬어요." 하며 손님 모시기에 열중하였다. 오랜만에 보는 아나 간사님과 멤버들과의 대화는 끝이 날 줄 모를 정도로 꽃을 피웠다. 해변이 보이는 백사장에 자리한 씨푸드 음식점에서 환영 저녁을 함께하며 즐거운 식사를 하였다. 숙소로 돌아와 그냥 자기가 아쉬운 우린 아나 간사님 방에 모여 도란도란 못 다한 이야기를 더 해나갔다.

2일째 새소리에 잠을 깨셨다는 팀장님 귀여우신 볼멘소리로 아침을 시작한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하는 중간보고 회의를 시작으로 우리의 과거 일정에 대한 라온아띠 3기 과정 보고와 그에 대한 한국 YMCA와 현지 YMCA간의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어로 된 PPT와 영어 발표를 준비해야 했던 중압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막상 시작이 되자, 자연스럽게 삼자간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회의 중간에 피낭 YMCA 디렉터께서 준비해주신 말레이 전통 간식을 먹으며 회의를 이어 나갔고, 12시가 되기 전 계획되어 있던 회의가 끝났다. 라온아띠 관련 YMCA 운영진들과 현지 차이니스 레스토랑에 가서 다채로운 음식과 보양음식도 맛보며 즐거운 점심을 가졌다. 저녁에는 피낭YMCA의 52번째 탄생일을 축하하는 모임에 참가해 노래도 부르고 맛있는 저녁도 먹으며 먹는 게 하루일과라는 말레이시아인들의 삶을 다시 한 번 체감하는 하루를 보냈다.

저녁 만찬이 끝난 후 김운용 팀장님, 이 아나 간사님이 마련하신 라온아띠 중간보고 뒤풀이 자리를 가지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동안의 쌓였던 불만을 털어놓았던 이도 있었고, 3개월간 자신이 가져야 했던 내외적 스트레스에 대한 자신의 대처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도, 그동안의 못 전했던 고마움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이도 있었다. 눈물도, 웃음도 있었던 자리를 만들어주신 두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자리를 마감하였다.

3일째 우린 피낭 YMCA에서 계획해주신 오전 투어를 하며 나름대로 편안한 자유를 즐겼다. 편안한 걸음 가운데 나오는 하나하나의 진솔한 대화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행해지는 대화의 시간보다 조금 더 마음과 마음의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서로의 생각에 시나브로 젖어들게 만드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저녁에는 한국 YMCA의 감사 저녁답례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국식당에 가서 한국음식을 먹으며 쾌재를 불렀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삼겹살을 보며 옆에 몇몇의 무슬림들에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곧 잊어버린 채 마구 먹었다. 3개월간의 피로가 막걸리 한두 잔과 함께 저 먼 기억으로 날아가 버리는 기분 이었다.

다음 날 새벽에 베트남으로 떠나시는 두 분을 위해 마지막 저녁은 일찍 취침에 드는 것으로 하였다. 못내 아쉬운 밤 이었지만 아나 간사님의 멤버 하나하나를 향한 마음으로 쓴 쪽지는 이미 우릴 채워주고도 남을 것이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일정을 마감할 수 있었다.

국내 훈련 중 교육받으며 익히 두려워했던 '소진' 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몸을 노크하고 일부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과정 중에 있었던 중간보고는 우리에게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와 같이 우리 속으로 녹아들어와 다시금 파이팅을 외칠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폭제가 되었다. 3박4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2개월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의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좋았던 기억으로 남았다.

2010/05/25 ~ 2010/05/27 싱가포르 로 Visa Trip을 떠나다 !

여기는 싱가폴 국제공항 ~

Malaysia 비자연장을 위해 Singapore로 Visa trip을 다녀왔습니다. Singapore는 Malaysia 이웃나라로 우리가 살고 있는 KL에서 버스로 5시간에 위치해있는 나라이지만, 작년 2기는 무박으로 버스를 타고 싱가폴을 다녀오다가 문제가 생겨 이번 3기는 비행기를 타고 Singapore visa trip을 2박 3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Singapore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 국가로, Malaysia와 비슷한 인종, 음식, 문화를 갖고 있어 낯설지는 않았지만, 물가는 Malaysia의 3배, 우리나라의 1.5배 높아 2박3일 동안 굶주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Singapore City tour도 하고 Night Safari, 박물관등 알차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Singapore는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게 되면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China town 조차 쓰레기의 '쓰'자도 보지 못했습니다. Visa 연장덕분에 해외여행도 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Malaysia로 다시 들어올 때, 이은솔 팀원은 입국심사에서 '너 왜 또 말레이시아로 들어왔느냐',' 정말 여행을 하기위해 들어왔느냐', '왜 오랫동안 있느냐' 등의 많은 질문을 받아서 살짝 곤욕을 치르기도 했지만 입국심사를 위해 KL YMCA에서 준비해 준 편지와 한국행 E티켓도 준비해간 덕분에 무사히 Malaysia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메트로 폴리탄 Y 로 Go Go~

싱가폴 차이나 타운 ~

싱가폴의 상징 머라이언 !

완전 깨끗하다

나이트 사파리 투어 중~

2010/05/28

Volunteering for Happy Wesak Day

– 말레이시아 석가 탄신일을 맞이하며 봉사활동을 하러가다 –

MAHA VIHARA Temple

MAHA VIHARA

2010년 5월 28일, 말레이시아 석가 탄신일을 맞이하며 말레이 라온아띠 팀은 KL YMCA 근처에 위치한 MAHA VIHARA Temple을 방문하여 1일 봉사활동을 펼쳤다. 여자 멤버들은 가부금 활동을 돕고 목욕할 때 쓰이는 신성한 꽃잎을 모아 절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축복을 전하고 남자 멤버들은 제단에 쓰이는 꽃을 옮기고 정리하며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열심히 땀을 흘렸다.

말레이시아의 석가탄신일은 한국의 석가탄신일보다 7일 느리며 국가적으로 큰 공휴일이기도 하다. 국교가 이슬람교인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서로 다른 종교를 인정해주고 함께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보니 한국에서도 종교적 축제가 있을때 타종교라 하며 배척기보다는 서로 존중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부금 활동 돕기

제단의 꽃 옮기기

2010년 5월 28일 , 라온아띠의 해피 웨삭 데이 이야기 ~ ♥

이달의 문화체험, Muslim Homstay

Muslim Homestay (2010년 5월 1일 ~ 5월 2일, 1박 2일)

무슬림의 생활은 과연 어떨까? 라온아띠 팀은 5월의 첫 주말을 맞이하여

다함께 뛰어보자~ 흐압
무슬림 코스튬을 입어보다 ~

YMCA가 마련한 홈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3월달에 경험하였던 홈스테이와는 달리 이슬람의 독특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잡은 라온아띠 :) 우리팀은 Bagan Datoh에 위치한 무슬림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여기 무슬림 가족은 인심좋으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귀여운 2명의 손자와 1명의 손녀로 이루어진 활기넘치는 분위기의 집안이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코코넛 껍질 까기를 체험해 보았는데 보기보다 살짝 어려웠지만 힘좋은 Erin은 한방에 혹- 까기 성공 !! 역시 우리팀 대들보 막내 :)

다음날 우리는 무슬림 웨딩에 초대손님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그 곳에서 우린VIP 대접을 받으며 이슬람의 독특한 결혼 문화를 경험하였다.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현지인들, 그리고 독특한 무슬림 웨딩을 바라보며 한국의 문화와는 또다른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

Muslim wedding
무슬림 신혼 부부와 기념사진 찰칵 ~ !

축복의 계란을 받았어요!

코코넛 완전 짱~

무슬림 전통 혼례 행사 중~

무슬림 웨딩은 이색적인 경험

코코넛 껍질까기 배우는 Jake

RaonAtti의 여행 스케치

에어컨이 필요 없는 Cameron Highland 로 떠나요 ~!

나비 농장의 엄청 큰 나비

베다니홈에서 지내는 동안 쉬는 주말에는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중, 베다니홈에서 보내는 마지막 주말을 우리는 카메론 하이랜드에서 보냈답니다! 카메론 하이랜드는 말레이시아의 중부에 위치하며 고도 1200M로 평균 15도의 서늘한 날씨로 말레이시아인들의 휴양지로 유명하지요. 'BOH' 라는 말레이시아의 차 종류가 모두 이 곳에서 나며, 유일하게 딸기가 나는 곳이랍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이 곳은 서늘한 날씨 때문에 더운 말레이시아에임에도 불구하고 긴 팔의 옷이 필요해요. 그래서 더운 날씨에 지친 우리들도 카메론 하이랜드로 피서를 갔습니다^0^ 우리가 있었던 Teluk Intan에서 Tapah라는 시골마을로 한 시간 반정도 버스를 타고 가서, Cameron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려 탈 수 있었어요. 타파에서 카메론으로 가는 버스는 에어컨이 없었는데, 두 시간을 올라올라 가니, 정말 에어컨이 필요 없는 서늘한 날씨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저녁쯤 도착한 카메론 하이랜드에서 우리가 묵은 곳은 Daniel's Lodge라는 게스트하우스였으며, 특별히 이 곳은 전세계를 여행하는 백패커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이 곳에 짐을 놓고, 우리는 카메론 하이랜드의 파사말람(야시장)을 경험하러 갔지요. 역시 카메론답게 여러 종류의 차와 과일들이 많았으며, 우리도 이 곳에서 과일 말린 것과 차를 구입했답니다. 저녁은 그 곳에 MT온 중국계 대학생들이 추천한 스팀보트(말레이시아의 샤브샤브)를 먹었습니다~ 배가 정말 든든했지요. 게스트하우스에 돌아와서는 정글 바에서 백패커들과 함께 여행에 관한 이야기도 하며 모닥불 앞에서 즐거운 밤을 보냈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아침 8시 반에 카메론 하이랜드 투어를 떠났답니다. 카메론 하이랜드의 넓고 푸르른 차 밭이 펼쳐진 광경이 정말 아름다웠지요. 딸기 농장에서는 생크림을 듬뿍 얹은 신선한 딸기와 딸기 주스를 맛볼 수 있었어요. 나비 농장에는 손바닥만한 나비가 주위를 날아다니며 예쁜 날개를 펼치는 모습을 눈 앞에서 볼 수 있었어요. 민영오빠와 인실언니, 예지는 정글 트레킹을 갔는데, 그 곳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꽃이라 불리는 '라플레시아' 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4시간 동안 이어진 정글 트레킹에 굉장히 피곤했지만 이색적인 경험이었다고 해요 :) 카메론 하이랜드는 작지만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곳 이예요. 이 곳에서 말레이시아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즐거웠답니다. 한동안은 서늘한 카메론 하이랜드를 잊지 못했어요. 기회가 된다면 또 가고 싶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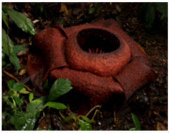
We love Cameron Highland ❤

끝없이 펼쳐진 녹차밭에서 ~

나이트 마켓을 방문하다

백패커들과 맥주 한잔 ~

스팀보트의 따끈한 국물 한그릇 ~


세계에서 가장 큰 꽃 라플레시아

권혁배 팀원의 나홀로 Sabah 탐험기

미팅이 끝난 후 부랴부랴 짐을 챙겨 공항으로 달려갔다. 비자 트립으로 싱가포르에 갈 때도 이용했던 에어아시아는 3-3 좌석의 작은 항공기라 항상 사람을 긴장하게 만든다. 갈 때는 기체결함으로 늦어지더니 올 때는 스콜 때문에 늦었다. 어쨌거나 친구들이 기다리는 사바하에 도착!

공항에서 만난 독일인 엔지니어와 택시비를 반반씩 부담해 친구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갔다. 맥도널드에서 기다리던 두 명의 친구들과 간단히 저녁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이동. 숙소는 현대식의 아파트형 호텔이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키나발루 산에 갔던 다른 친구들도 하나씩 도착. 나를 기다리느라 산행을 포기한 두 명의 친구에게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이 든다. 한국에서 본지 5년이 넘게 흘렀는데 여기까지 불러주고 함께하게 될 줄이야. 친구들이 모두 도착해 처음 만나는 친구들과도 인사하고 미리 한국 슈퍼에서 사간 백세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두가 말레이시아 뉴스 기자와 사진기자인지라 무엇을 물어보든 설명도 척척!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겨도 얼굴 찌푸리는 사람 하나 없이 의연하게 대처한다. 아 이것이 가만히 있어도 더워서 짜증나는 이 나라 로컬의 살아가는 방식이구나...래프팅을 위해 7시에 출발하기로 한 다음 날 아침. 난 5시에 일어났는데 다들 일어나 있어서 깜짝 놀랐다. 12명의 남녀가 한곳에서 부대끼려니 번잡스럽고 불편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다들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여유롭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모닝 마켓을 둘러보며 팀원들을 위한 간단한 기념품을 사고 래프팅을 하러 갔다. 높은 산에 올라 기차를 타고 더 올라가는데 기차는 50년대의 피난민을 태우는 기차를 연상케 하는 오래된 디자인에 뒤편의 몇 량은 아예 객실이나 칸막이 같은 것도 없이 바퀴 위에 발판만 있고 그 위에 온갖 짐과 닭, 오리 등 지역 주민들의 먹을거리가 될 동물들과 함께 타고 갔다. 운이 좋게도 우리가 갈 때까지 많은 비가 내려 래프팅 포인트는 거친 물살로 우리를 반기고 있었다. 한국에서 여름마다 해봤다고 어드밴스 코스를 고른 나는 말레이 스타일 떼 따릭과 같은 색의 흙탕물을 잔뜩 마시며 후회하기도 했지만 말레이 사람들도 즐기기 힘들다는 코스를 무사히 살아남아서 넘겼다. 다음 날은 까아마탄 축제가 갔다. 말레이시아에서도 본토가 아닌 보르네오 섬의 로컬문화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고 여러 가지 전통음식을 먹어보고 원주민들과 춤을 추는 등 로컬 문화 체험 이벤트에 참여했는데 원주민들이 사냥할 때 쓰는 물소 뿔로 만든 새총과 독침을 쏘는 블로우 파이프 이벤트에서 운이 좋게도 쏘는 족족 과녁에 맞추어 받은 상품을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틀은 한참을 차로 이동해 보르네오 섬의 전통 중 하나라는 롱 하우스에서 홈스테이를 했다. 이름 그대로 길~게 생긴 롱 하우스는 대부분이 대나무로 되어있고 짐승과 해충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소 높은 구조로 되어있는데 일몰 이후로는 시원해진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상당히 더웠다. 친구들과 잔뜩 마신 술기운에 잠들었다가 닭 우는 소리에 깨서 일어나보니 밤새마신 술자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마지막 이틀은 사람들이 대륙의 끝이라고 부른다는 보르네오 섬 최북단의 심빵 망가야우에서 보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이 낮게 깔린 구름이 가득 찬 아름다운 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바베큐 파티를 벌이다가 밤에는 파도소리만 들리는 바닷가 절벽에 나란히 누워 하늘에 가득 차 쏟아질 것만 같은 별을 보는데 슈팅스타가 세 번이나 쓩~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떠난 사바하 행이 행복하게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2010년 5월 29일 ~ 6월 3일, 권혁배 팀원의 Sabah 여행기

말레이시아에서 보내는 편지

저희가 베다니 홈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Kerk씨 부부입니다. 그 분들은 베다니 홈의 후원자이자, 베다니 홈에 오는 봉사자와 친구가 되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들을 베다니 홈의 디렉터인 Jayasingh에게 소개받았고, 제가 Girl's Brigade에게 워십 댄스를 가르치러 시내에 있는 교회로 갈 때, Ms. Kerk가 데리러 오시면서 저희에게 주일에 시내로 점심식사에 초대하셨고, 함께 점심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때에 그분들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Kerk씨 부부에게는 아들이 둘 있는데, 모두 호주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곳에서 생활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Kerk씨 부부의 첫째 아들 사연입니다.

그의 이름은 Kerk Zi on이며 성경에 나오는 시온이라는 땅이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상냥했으며, 부드러운 마음씨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2007년, 그가 호주에서 살 때,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과 해변으로 휴가를 떠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옆에서 함께 해변에 있었던 우리 중 한국인 여학생 두 명이 있었는데, 해변에서 놀던 중, 강하게 치는 파도와 함께 쓸려갔고, Zion씨가 친구와 함께 바다에 빠진 한국인 여학생을 구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여학생을 바위에 올리는 순간 바다는 Kerk씨의 첫 째 아들인 Zi on씨를 데려갔습니다. 지금까지도 Zi on씨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난 지금, Kerk씨 부부는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잠겨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신이 아들을 데려가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며 말레이시아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또한, 아들을 데려가게 한 한국인들이 미울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우리를 '내 한국인 아들, 딸'이라고 하셨습니다. Kerk씨 부부는 사고 당시 한국인 여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타국 땅에서 자국의 사람도 아닌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국인 여학생을 구한 Zion씨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한국에 알려주며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그들을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만약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다니고 있는 교회에 그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한 말레이시아인에 대해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Kerk씨 부부에게 아래 연락처로 희망의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Mr.Kerk Choon Keng
ckkerk@unitata.com
- Mrs. Kerk Cho Tan
ctchong77@gmail.com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버린 故 Kerk Zi On 씨

Mrs. Kerk씨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Sunday, December 6, 2009
Son, I love you ! Zi On dear...
Ma say to you with a hug, "Son, I love you!"
"Ma, I love you too!" This is your response.
I remember your voice so gentle so true.
I hear you say again today.
I hear you say : "Ma how are you?"
"Son, I am fine, but son, I miss you, I miss you, I miss you..!"
I miss you, son and I love you.

Remembering you especially on your second anniversary - 5 Dec 2009

Kerk Zi On씨를 추모하는 Blog
http://zionkerk.blogspot.com/2007/12/news-about-zi-on-kerk.html

2010/05/17
커크씨 부부에게
비빔밥을 만들어 드린날
다함께 저녁을 먹으며 –

말레이시아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다...

노민영 팀장의 에세이 특집

어느새 까맣게 변해버린 모습만큼이나 말레이시아를 느끼고 있는 우리 다섯..

지천에 널린 바나나 나무와 코코넛 팜 나무가 우릴 감싸고 있는 여기는 말레이시아의 반도 북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Teluk-Intan 이라는 도시의 Simpang-Empat 이라는 곳이다. 현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Bethany home이라는 시설은 정상인 친구들보다 약간 몸이 불편하거나 생각이 다르고 느린 친구들이 함께 공부하고 숨을 쉬는 아름다운 공간이다. 우리는 시설에서 마련해준 가까운 거리의 집에서 머무르며 그들과 소통한지 한 달이 넘어가는 시점을 지나고 있다. 은행나무와 벚나무 대신 높다랗게 뻗어 오른 코코넛나무와 팜 나무를 가까이하며, 이제는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더 친근해져버린 손길, 아무일 없다는 듯 웃어 넘기는 마른하늘의 날벼락, 갑자기 쏟아 내리는 우레와 같은 소리의 장대비가 주는 시원함을 느끼며 말레이시아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몸소 깨닫고 있다.

말레이시아 속에서 우리는 원더걸스, 슈퍼주니어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자 매운걸 잘 먹고, 삼성과 현대와 같은 첨단을 걷는 회사를 소유한 나라의 사람이다, 처음 보는 말레이시아 사람이 나에게 비의 근황을 묻고, 송혜교를 본적이 있냐는 등의 질문을 하며 같이 사진 찍길 원해 하는 모습은 처음의 당황을 끝으로 이제는 자연스런 모습이 되었다.

장애라는 단어가 무색 할 만큼 아무렇지 않게 흡수되어 서로 살아가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보며 나도 모르게 희미하게 그어져 있던 마음 속 분리 선은 얼른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의 부끄러움이었다. 더욱이 거의 모든 음식점과 가게 공공기관 직원들이 농아들이 수화로 이야기 할 때 보여주는 자연스런 대화의 모습이란, 이 나라의 국민들의 마음가짐 대한 존경과 마음 속 그들의 대단함에 대한 탄성을 자아내기 충분했다. 무언의 대화 속에서 계속되는 웃음과 미소는 장차 더욱 도약 할 말레이시아, 국가 경쟁력의 받침돌이 되기 충분해 보였다. 말레이인, 중국인, 인도인, 이렇게 세가지 인종이 서로 살을 부딪쳐가며 살아가는 다문화 국가, 말레이시아 안에서 우린 결코 남이 아닌 다른 문화를 가진 친구 그 자체였다. 너무나도 감사한 환대 속에서 하루에 식사를 다섯 끼니를 먹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말레이시아 사회에선 우스갯소리로 '말레이시아 안들은 하루에 한끼만 먹는다'라는 말을 한다. 이 뜻은 그들의 식사가 끝이 없이 계속 된다는 뜻이다. 여유를 즐길 줄 아는 말레이시아 안들은 아침식사를 시작으로 티 타임, 간식 등 계속되는 식사문화를 소유하고 있다. 누군가 결혼이나 축하행사를 갖기라도 한다면 하루에 여섯 일곱 끼니는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그들의 다소 열악한 홍보활동을 위해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주고 사진을 찍어주며 춤과 노래를 가르쳐주고 풍선아트와 종이 접기를 가르쳐준다. 아이들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나를 시작으로 춤의 모든 것을 좋아하는 인실이, 만들기를 좋아하는 예지, 보이는 좋은 것들을 영상화 하고 싶어하는 혁배,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은솔, 이렇게 다섯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복지 시설 수준은 한국에 비해 수준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인식과 대접은 우리나라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선진 위치에 서있다. 봉사를 한다는 것을 대단한 결정으로 생각하며 봉사자들에 대한 감사 대접은 생각 그 이상이다. 한국에서 봉사를 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 매우 감사하다며 악수를 청하고 식사 또는 자기 집에 초대 하려 하는 게 다반사이다.

모든 인도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볼록 블록이 깔려있으며 그들은 지팡이를 통해 자연스레 길을 걷곤 한다. 장애인이 장애에 대한 부끄러움이 전혀 없으며 당당히 그들의 필요를 다른 이에게 요구하는 모습에서 진정으로 조화로운 사회라는 인식을 받기에 충분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2개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짧기도 길기도 한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하나하나를 이루어 나가며 영혼의 양식을 채워나가고 있다. 20여 년 각자 살아온 우리가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같이 살아가며 서로의 머리를 맞대며 봉사를 해나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내 인생에서 많은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서로가 함께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길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치려 한다. 내 인생의 강렬한 태양, 검게 그을린 피부만큼이나 흘렸던 땀과 노력, 작게는 오늘을 추억하며 이곳을 상상할 내 모습을 안겨준 '라온아띠'에 많은 감사를 드린다.

BETHANY HOME을 떠나며...

Traces by RaonAtti ♥

Teaching assistant

Making Movie clips

Music Class

Taking Pictures of Children

Fundraising Project

Works in Light House

Wondergirls Dacing Class

Worship Dancing Class

Making Framed Pictures

Painting a mural

Balloon Art Class

Helping For Donation

Making Profile boards of Group Home

RAONATTI
FRIENDS
OF
MALAYSIA
Cooking Assistant

Be AaonAtti~ Project

2010년 3월 22일부터 5월 21일 까지.. 우린 2개월 동안 베타니홈에서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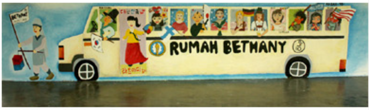
Fundraising Project by selling balloon arts on Indian festival

28th April, we went to Teluk-Intan to see around 'Indian festival'. We arrived Teluk-Intan at 10 AM. At first, we saw around all the Indian Markets and their ceremonies. After then, we looked for place that we can sell the balloon arts. There were so many volunteers requiring people's donation. So we thought that we could sell the balloon-art in this area. To making balloon-arts, we stay a restorant for a while. We'd made products for 2 hours. We arranged our position to sell and then sold the balloon arts at cheap price. "One balloon-art, 2 RM, we're Korean volunteers and selling balloon arts for donation."

People asked us about our simple profile and purpose. So we answered it. They bought it happily. During 2 hours(4~6PM), we've got 55 RM. We felt little bit tired but it was a really good experience to us. We could feel the warm hearts of people in Malaysia.

Mural Painting Project

Our team planed to paint a mural for Bethany Home. One day, The leader of Malay RaonAtti team, Jake thought out a great idea. He said that we could make a painting with the other volunteers from foreign countries. So we suggested our plan to volunteer friends and they were delighted to accept our suggestion. All 13 Volunteers from Germany(2), Finland(2), Japanese(1), Malaysia(3) and Korea(5) had to discuss What to draw and how to do it. We decided to draw Bethany Home bus. And we were supposed to draw our figures or someone who wear costumes on traditional styles on the bus. We started drawing the body of Bethany Home bus and drew our figures in each part of windows. After drawing, we painted our mural step by step...



This is our international masterpiece !!
We could share mutual feelings between volunteers while painting it together and from now on, we will be able to feel fellowships between us by memorizing our masterpiece !

Volunteer Friends in Bethany Home

Jake

Annika

Kartic

Blaise

Faten

Erin

Rebecca Anne

Estella

Olga

Pine

Kausi

Masumi

벽화 그리기 프로젝트 .. 그 뒷 이야기 ~

베타니 홈을 떠나기 1주일가량을 남겨둔 5월의 중반, 우린 이곳에서 마지막 작업으로 남겨질지 모를 '벽화 그리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어야 함을 느꼈다. 이미 베타니 홈에서의 많은 일정으로 인해 다들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었기에 "벽화 그리기" 가 수월하게 진행 될지는 의문이었다. 정말로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는 상황이었고 많은 고심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때 생각난 것은 우리와 2달을 함께 한 주위의 외국 봉사자들이었다. 그들과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생각하며 함께 했기에 벽화 또한 함께 그리며 봉사라는 하나의 주제를 통해 융화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고, 팀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외국 봉사자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였다. 그들 역시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수용해주었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벽화 그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다. 모두가 함께 타고 가는 베타니 홈 버스를 그리자는 핀란드 친구의 의견에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전체적인 스케치는 노민영 팀장이 하기로 한 가운데 버스에 타고 있는 개개인의 모습은 모든 봉사자들 스스로가 표현하고 색칠하기로 하였다. 대다수가 페인트 벽화를 처음 해보는 가운데, 첫 스케치를 시작으로 벽화를 하나하나 표현해나갔다. 버스 안에 타고 있는 개개인의 모습은 개개인의 개성과 생각을 표현해내기 충분했다. 각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기나라의 국기와 학교 이름 상징적인 것들을 그려 넣었으며, 몇몇의 그림의 소질이 있는 친구들은 흡사 사진을 찍어 논 듯 한 그림을 그려 놓기도 해 벽화를 더욱더 빛내주었다. 생각보다 벽화작업의 작업량이 많아 1주일이 넘는 시간이 소요 되었지만 매일 일과가 끝나고 그림을 그리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재미도 쏠쏠하였다. 미술교육을 부전공하는 황인실 팀원의 역할은 색을 입힐 때 빛을 발하였다. 황인실 팀원의 색감은 다른 외국친구들도 인정할 만큼 좋았고 하나하나의 색을 입히며 비로소 벽화가 완성되어 감을 실감할 수 있었다. 벽화라는 결과물을 창출해 내기 위해 시작한 이 프로젝트에서 벽화를 그리는 동안 생기는 서로간의 유대감과 과정 속 인내와 노력을 다시 한 번 느끼며 왜 봉사자

벽화 완성 후 떠나기 전 봉사자 친구들과 함께~
We are one but we are many
And from all the lands on earth we come
We share our dreams
And sing with one voice
I am. You are. We are
Part of Bethany Home.
RUMAH BETHANY

들이 마지막에 벽화를 그리는 지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베다니를 떠나는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완성된 벽화에 모여 서로 사진을 찍었고 서로의 얼굴 얼굴에서 흡족해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훗날 다시 찾아온다면 우릴 반겨줄 이 버스가 2010년 함께 했던 우리의 푸르렀던 날을 달려줄 그날을 기약하며 이 글을 마친다.

Erin 이 들려주는 Bethany Home 의 Behind Story, 이젠 말할 수 있다 !

Bethany Home.. 두 달이 빨리 지나가길 바랐던 기간, 하지만 지금은 딱 두 달이라도 더 하고 싶은 곳.
그리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고 마음이 짠한 보고 싶은 나의 소중한 친구들...

#1. Bethany Home.. 몸보단 마음이 힘들었던 적응기간

나에게 Malaysia 활동 중, 가장 기대되고 가장 하고 싶었던 그리고 Malaysia팀을 선택한 이유 중의 하나, Bethany Home에서의 두 달간의 생활.

KL YMCA에서 한 달간의 교육이 끝난 후, Bethany Home으로 이동하면서, 우리 팀 모두는 각자의 부푼 기대와 목표,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많은 것 을 기대하며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B. H 활동을 마음속으로 준비했을 것이다. 나 또한 역시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 넘치는 상태로 Bethany Home으로 이동하였다. 막상 Bethany Home으로 들어갔을 땐, 기대와는 다르게, 기본적인 OT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떻게 무엇을 진행해야 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이 우리는 마냥 방임상태에 놓인 기분으로 적응기간을 보내야 했다. 이런 적응기간은 약 3주간 계속되었고, 우리는 할 일을 찾지 못해 처음의 의욕과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한국에서 작성했던 프로필에 있는 특기들로 어떻게 하면 봉사활동을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까 라는 생각만 했지, 이러한 어려움에 부딪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둬야겠다는 내 목표는 점점 작아져 가장 기본적인 아이들 한명 한명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Bethany Home 생활동안 나의 목표가 되어버렸다. 목표를 최소화 하고,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는 생각과,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매일같이 아이들에게 웃으며 이름을 불러주며 인사해주는 일상을 반복하였다. 또, class를 돌며 수업보조를 하고, 체육활동 보조를 하고, 직업 훈련반 친구들과 축구 활동을 하고, 주방보조를 한지 언 3주가 지난 후, class선생님들과 아이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먼저 달려와 인사해주고, 매일같이 웃는 얼굴로 우리를 맞이해주었다. 한국인의 특성중 하나인 성과주의에 너무 시달려있던 나는, 어떠한 일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될까 라는 생각만 했지, 이러한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어쩌면 이 어려움이 나에게는 큰 배움의 기회로 다가왔는지도 모른다.

시간이 지나고, 전반적인 시스템에 적응한 후. 각 반 선생님들과 class 수업일정을 조정하며 각자의 특기로 수업을 하나씩 진행하게 되었다. 큰 특기는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특기로 아이들에게 흥미와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였고, 아이들과 마주하며 즐길 수 있는 1분 1초의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2. 또 하나의 활력소 ! 봉사자 친구들

Behtany Home은 말레이시아 어느 장애인시설 보다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 특수학교라고 소개를 받았다. 매년, 수백 명의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하여 짧게는 1주일, 길게는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다 가는데, 봉사활동을 마친 자원봉사자들의 꾸준한 후원과 관심이 베다니 홈 운영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호주 자원봉사자 피터&웬디 부부를 통해 처음에 받지 못했던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 후로 피터&웬디 부부의 도움 덕분에 우리와 같은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했던 독일, 일본, 핀란드, 말레이시아 봉사자들과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었고, 덕분에 같이 여행도 가고, International party도하고 여가생활을 즐기며 타지에서 겪는 외로움, 고민, 일상생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을 공유하며 Bethany Home 일정 중간부터, 우리에겐 또 다른 큰 활력소가 생겼다.

#3. 2개월 간의 스펙타클 동고동락 이야기

우리 집은 Bethany Home 소속 Group Home중 하나를 빌려 마련된 집으로 그곳에서 우린 Bethany Home 프로그램 일정 기간동안, 즉 10주간 같은 공간에서 우리끼리의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다. KL Y에서의 교육기간동안은, 호텔에서 지냈기 때문에 청소에 대한 문제도 없었을 뿐더러 에어컨도 있어 말레이시아의 더위를 실감하지 못했지만, Group Home으로 옮긴 후 우리는 아침부터 33도를 넘나드는 더위 때문에 급속도로 떨어지는 체력과 싸워야 했다.

10주간의 생활을 하면서 몇 십 년을 다른 생활방식으로 살아온 각자의 생활패턴 때문에 트러블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맞춰가려 노력하며 같이 요리를 하고, 청소, 빨래도 하고, 여가생활을 즐기며 서로에 대해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우리 이웃집은 Glory home이라는 Bethany Home 소속의 학생 7명이 생활하는 그룹 홈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너무 친해져서 빨리 친해지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다.

#4. 만남, 그리고 이별 ...

Bethany Home 정식적인 첫 활동이었던 Special Olympic, 처음 대면식을 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15살인 자신이 5살이라며 해맑게 대답해준 키갠생,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는 것 마냥 항상 박수를 요구하는 비키니스, 동자승의 웃음을 가진 지지엔, 부끄럼이 많은 징, 페인트집 사장님놀이를 하는 퐁탁훈과 메린, 이쁜짓을 잘하는 빈슨, 한번들은 음악을 피아노로 연주하는 절대음감 탄자이엔, 우릴 보며 수건 춤을 추는 빠라, 정치인본능 용씽 장난꾸러기 웬지앙 8옥타브 아빈 3개 국어 유닝 외 모든 Bethany home 친구 한명 한명의 모습을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을 것이다. 10주간 이 친구들에게서 순수함을 배웠고, 지쳤던 생활 속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소소한 행복을 하루하루 심어주는 내 삶의 낙이기도 하였다.

10주, 친구들과 순수한 우정과 사랑을 나누기엔 우리에겐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

봉사자들과의 수많은 이별을 경험한 그 친구들에게는 이별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을 수도 있지만, 우리를, 스쳐지나가는 인연이 아닌 그렇다고 특별한 존재도 아닌, 오래된 친구들이 놀러왔다 갔다고 생각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작은 바람이다.

보고 싶은 친구들 .... 잊을 수가 없다...

옆집의 그룹홈 친구들 ~

윤잉과 함께 브이 ~

헤어지기 마지막날
봉사자 친구들과 함께
(ㅠ-ㅠ 태극기가 없다
가져올걸...)

폐막 후 스페셜 올림픽 ~ 베다니 친구들과 다함께 !

너희들과 함께한 순간들.. 영원히 잊지 못할거야...

내 이름은 빈슨 ~
저 춤 잘추죠 ??

편집장의 잡담

5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라온아띠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준 우리 팀 :) 항상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가끔은 티격태격, 으르렁대기도 하지만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버린 우리, 이제 두 달 밖에 남지 않았군요. 이제 페낭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니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지만, 말레이 라온아띠 ! 이번엔 페낭 Y 에서 제대로 큰 일(?) 낼 것 같아요 ~ 기대해 주시구요 :)
말레이시아에서 흘린 엄청난 땀 만큼이나 말레이시아에 푹 정들어 버린 우리 다섯. 지켜봐주세요 ~
6월 이야기는 페낭에서 ~ 그럼 이만 !

- 2010년 6월 9일 Estella의 잡담